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 제동

교육위, 새해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327억 감액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실… 적정성 등 부족” 부결
학교시설 개선 43억 증액… 통합재정기금에 76억

제주도교육청이 청사 부족 문제 해소를 취지로 추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이하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과 부지 매입(한라일보 11월 29일자 4면)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역대 최대 1조 5935억원 규모의 202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종합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비 등 327억5000만원을 감액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육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감액한 사업은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취득사업 140억원,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25억 9000만원, 학생통학지원 56억5000만원, 교직원 국외 연수 19억6000만원, 예비비 76억5000만원 등이다. 반면 학교시설 환경 개선 43억7000만원, 특성화고 선진기술 학생 국

외 연수와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7억80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3억8000만원, 유치원 놀이환경 조성 과 투명 마스크 구입 2억9000만원, 메이커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교육 내실화 1억7000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등 다문화교육 지원 1억4000만원을 늘리는 등 52개 사업에 총 79억7000만원을 증액시켰다. 나머지 증액분은 내부유보금 171억3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76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위원회는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 감액과 관련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시된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부실하고 주차장, 건폐율, 용적률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적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당분간 청사 인근 임차 건물을 활용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종합교육지원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임차 건물에 두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마음건강센터 등도 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건물 임차는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한 만큼 가장 동인초등학교 부지 등 장기적으로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상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선화기자

제주지역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한다 도의회 행자위, ‘자원봉사 지원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자원봉사자들의 예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키고, 세부 지원사업으로 기존 자원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에 추가해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000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특히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박호형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노인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인원의 지속 감소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동안 적합한 봉사시간을 노인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22 제주국제청년포럼 11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2022 제주국제청년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주시 오동동 소재 카페 피커스(Pickus)에서 개최된다. 현장과 온라인 참가를 병행한 온·오프라인 교류로 마련되며, 유튜브와 줌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제주국제청년포럼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제주도와 교류하는 9개국 22개 도시의 청년과 도내 청년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공동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실천적 참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도와 교류하는 9개국 22개 도시의 청년과 도내 청년 총 100여명이 함께 하는 가운데, ‘공동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실천적 참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 총 6개 패널토의를 구성해 환경, 교육, 경제, 웰빙의 주제로 토론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제안하게 된다. 강다혜기자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화위 김광동 상임위원 4·3 인식 논란 새 위원장 내정설 알려지며 기고 둘러싼 논란 확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의 내정설이 나오는 가운데 김위원의 제주4·3 인식이 논란이 되며 내정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4일 논평을 통해 김위원에 대한 위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

위원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주장하는 위원장 임명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4년 4월호 ‘한국논단’에 기고한 글에서 “‘제주4·3 폭동은 반한·반미·반유엔·친공투쟁’”이라며 “제주 4·3 희생자가 제주도민 유격대

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여야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이후 202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활동을 재개했다. 서울=부미현기자

도의회, 도 내년 예산안 500억 감액

한도위, 버스준공영제 예산 등 감액 규모 가장 커
도의회, 6일부터 예결위 회의 시작 계수조정 착수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감액됐다. 더불어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일 감액 사업을 확정했으며,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논의 후 조만간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5개 사업에 48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삭감사업은 양 행정시의 초·고급무수당 8억8000만원,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성과 상여금 7억원, 연금부담금 7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33개 사업에 96억원이 감액됐다. 와홀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원,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등이 감액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13억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2억4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총 147억원을 감액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성적위탁 사업비 11억 3000만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5억원 등 54개 사업에 89억원을 감액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6억3000만원, 차세대 경제 과원 전환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등 84개 사업에 125억원을 감액했다. 각 상임위는 증액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조만간 예결위로 넘길 계획으로, 예결위는 6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윤기자

毛羅始祖 乾始大祭

쌀쌀한 날씨가 벌써 초겨울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道民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財團에서는 耽羅(毛羅)를 創始하신 三乙那의 偉業을 기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번영과 道民의 안녕을 기원하는 2022年度 毛羅始祖 乾始大祭를 다음과 같이 奉享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2년 12월 10일(토) 11:00
- 장 소 : 삼성사 혈단 (제주시 소재 삼성혈)
- 헌 관 : 초현관 오영훈(吳伶勳)(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현관 김황국(金晃局)(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종현관 현영택(玄永宅)(서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2022. 12. 10. 건시대제 시 제주도민은 삼성혈 무료 관람입니다.

2022. 12. .



財團 高·梁·夫三姓祠財團
理事長 夫 奉 河

2022년 제주관광학회 동계 학술세미나 개최

“대전환의 시대, 제주관광의 미래 이슈”

-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4시 (13시 30분부터 등록)
- 장 소 : 호텔 시라우스 연회장(B1)
- 주최/주관 :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주)한림공원, (주)다림디컴퍼니, (주)한라산, 청원꽃집, 정인축산

	시 간	행 사 내 용	
		등 록	
개회식	13:30~14:00	사회 : 부소윤 이틀교육원 원장	
	14:00~14:20	개회사 송상섭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축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축사 송재호 국회의원 축사 김경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사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축사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1부	14:20~14:50	1주제 : 관광기업의 ESG 추진성과와 미래 현재(주)한라산 대표이사	
	14:50~15:30	좌장 김창식 (전)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토론 이보연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양현택 제주테크노파크 팀장 차승수 제철원 대표	
2부	15:30~15:40	Coffee Break	
	15:40~16:10	2주제 : 제주 국제안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주관광의 방향 장희홍 제주대학교 첨단기술연구소 초빙연구원	
3부	16:10~16:50	좌장 김영진 (전)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토론 박정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원석 제주관광공사 크로플즈 고미 제민일보 (전)편집국장	
	16:50~17:00	Coffee Break	
3부	17:00~17:30	3주제 : 제주관광진흥계획의 성과와 과제 김윤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팀장	
	17:30~18:10	좌장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신동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해원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김익태 KBS제주방송총국 (전)보도국장	
	18:10	폐회 및 민찬	
	18:10~18:30	2022 정기총회	



社団法人 濟州觀光學會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 축
베 네 하 우 스

문의 : ☎ 064-723-1105